

양양~타이베이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운항

오는 8월4일부터, 대만 국적의 “부흥항공”으로

강원도(환경관광문화국)는 오는 8월4일부터 양양~대만 타이베이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를 취항하기로 하고, 전세기 항공사업자인 (주)프리덤에어시스템사와 양양국제공항~대만 타이베이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운항, 협약을 체결하였다 고 밝혔다.

운항기간은 8월 4일부터 2012년 3월 31까지 8개월간 양양국제 공항에서 대만 타이베이를 운항하기로 했으며, 운항항공기는 대만 국적의 “부흥항공”으로 A321급 182석 규모이다.

운항횟수는 8월4일부터 11월 30 일기간에는 항공기 1대가 주 2회 (4편) 운항하고, 12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까지는 항공기 2대가 주 4회 (8편) 운항하기로 했다.

운항시간은 대만 타이베이공항에서 08:00 출발해서 양양공항에 11:30 도착, 12:30분에 양양공항을 출발해서 대만 타이베이 공항에 15:00 도착한다고 했다.

강원도는 양양~대만 타이베이 간 국제선 전세기를 92회(184편) 운항하여 국내외 관광객 26,68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양양국제 공항 정기편운항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탑승률제고를 위해 7월중에 도내 200여개 여행사 대상으로 전세기 여행상품 설명회를 춘천·원주·강릉 3개 권역별로 순회 개최하고, 양양국제공항 인지도 제고를 위해 대한현지와 국내 및 도내 신문, 방송매체 대상으로 광고 등 홍보를 공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강원도는 국내외 관광객의 쇼핑편의를 위해 공항개항 이래 최초로 공항 면세점을 8월 4일 전세기 취항과 동시에 개장하기로 했다.

면세점은 공항 2층에 50.3㎡(15.3평) 규모로 개장하고,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에는 100㎡(30평) 이상 확장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도는 면세점 개장을 위해 관세청 등 정부 관련기관 방문협의와 국내 대형 면세점 유치 등 주도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3월 28일 한국공항공사에서 전국공모를 거쳐 현대아산을 면세점 운영자로 선정하였고, 4월 20일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특허 사전 사용 승인을 받았다.

강원도는 대만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숙박시설과 음식점 서비스개선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문화관광상품으로 「남이섬, 선교장, 정동진, 참소리박물관, 설악산, 바다열차, 체험상품으로 삼척 해양레일바이크, 내리천 래프팅, 산천어축제, 빙어축제, 겨울 스키상품으로 알펜시아, 용평리조트, 하이원리조트」 등을 상품화하고, 4박5일 정도의 상품 패키지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숙박시설과 음식점 서비스 등을 통해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6월중 국토해양부로부터 양양~대만 타이베이간 국제선 정기성 전세기 운항허가가 나면 전세기상품 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강원도는 국제선 정기노선 개설을 위해 국제노선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전세기항공사업자와 운항협의를 추진중에 있는 노선은 8월~12월까지 중국 하얼빈 노선, 11월~2012년 4월까지 중국 상해 노선, 9월말~2012년 3월까지 일본 아오모리 노선이며, 이중 예산의 범위내에

서 선별하여 조기 취항토록 할 계획이며, 겨울스키를 관광상품화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태국 등 동남아 국가 대상으로 전세기운항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강원도는 2012년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취항을 위해 급근 하반기부터 항공사업자 대상으로 전세기 및 정기편 운항 협의를 조기 착수하고 안정적인 국제선 운항을 위해 「항공기 리스, 등 정기편의 고정적 운항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장기적인 검토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해 5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5개월간 중국 상해·심양 노선에 전세기 136편 운항하여, 9,014명이 이용하는 등 양양국제공항 인지도 제고와 중국 길림성 등 동북3성 시장을 개척한 바 있다.

박용욱 강원도 환경관광문화국장장은 양양~대만 타이베이간 국제선 전세기 취항은 “양양국제공항의 국제선 정기편 운항,의 청신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공항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동북아시아 대륙 국가로 가는 항공교통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원 전태준)

기고

고령화 사회와 교통문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선진국보다는 다소 늦게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모든 시·도가 인구구성비에 있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선 고령화사회가 되었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을 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제도와의식과정책에 앞선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사회적으로나 환경적 그리고 개인적 또는 가족관계 등에 있어 이미 여러가지로 예기치 못한 많은 돌발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물론 고령화사회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마디로 낮은 출산율과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평균수명의 연장때문이다.

그런데 이같은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중의 하나가 바로 고령화에 따른 교통문제인 것이다. 즉 고령화 속도에 비례하여 해마다 고령자들의 이동유구 증가로 인한 고령의 자가운전자 증가와 더불어 고령자들의 교통사고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실례로 우리 충북도내의 17개 시내버스업체의 금년도 5월말까지의 교통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해 보면 60세 이상의 사고피해자가 56명으로 전체 사고피해자 204명의 2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5년전의 16%에 비하면 급격히 증가한 것이다.

물론 여건상 노인들이 고령화될수록 이동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를 가장 많이 선호하며 이용하고 있음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사고의 대부분이 경미한 안전사고인 차내사고와 승·하차 사고임에도 많은 분들이 고령으로 인한 신체적 노쇠와 만성질환 등 기왕증과의 합병으로 인한 의외의 중상 피해로 오랫동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버스업계에서는 금년도부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대책의 일환으로 특히 버스운전자들에게 고령의 노약자승객들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의 함양과 친절배려의 인성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사회의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서 우리 모두가 이를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 변하고 대비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是我们도 고령국가로서 갖춰야 할 국민적 의식과 적극적인 중장기의 교통복지와 안전정책으로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우리의 미래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고령화 사회에서의 최우선 과제는 노인들에 대한 공경과 보호의 우선의식 등 법국민적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라 할 것이다.

특히 우리의 미래에는 무엇보다도 고령자들에게 대한 청소년과 중장년층의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가 갈수록 더 많이 요구될 것임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직접 노인들을 상대로 한 준법준수와 교통법규에 대한 계몽내지는 다양한 안전교육 등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가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 그리고 노인대학과 다양한 형태의 시니어클럽 등을 활용한 노인들의 의존적인 생활욕구와 웰빙욕구 충족을 위한 안전요원이 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고령화사회에서의 교통문제는 1차적으로 고령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게 있음은 별개로 하고 법정주차인에서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과 함께 각 지자체별로 고령자들에게 실질적이고도 실효성 있는 교통정책의 세부추진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어쨌든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들이 보행자로서 승객으로서 또한 운전자로서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형 고령사회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령자로서의 교통이동권이 발달로 노년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욕을 갖게하며 생활의 활력소가 되어 노년 삶의 질을 결정짓게 하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류 근 홍 <법학박사>
전국버스공제조합총복지부/부지부장

2014 AG, 남동 경기장 15일 착공!!



농구, 럭비 경기가 열리는 “남동경기장”은 「인천의 자연과 시민, 전통이 흐르는 새로운 경기장을 상상합니다」라는 테마로 계획하였으며 부지의 자연적 여건과 경기장 시설과의 조화적 통일성이 돋보인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체조와 럭비 경기장으로 사용할 남동경기장이 지난 15일 착공되어 문화수영장, 계양 경기장에 이어 세 번째로

기공식을 가졌다. 남동경기장의 기공식은 시에서 직접 신축하는 16개 경기장시설중 5개 경기장이 착공되는 것이며, 6월 28일 서구 주경기장(개폐회식, 육상)을 비롯한 심정경기장(테니스, 스쿼시), 송림경기장(배구)이 각각 21일과 23일 기공식을 갖게 되면 6월 중에 9개 종목경기장이 첫 삽을 뜨게 된다.

또한, 7월과 9월에 각각 강화경기장(태권도,우수, BMX)과 선학경기장(유도,레슬링, 하키)이 착공 예정이어서 대부분의 신설 경기장이 본격적인 건설 시공단계에 접어들어 순조롭게 대회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고 아시아경기대회비밀본부 관계자는 밝혔다.

남동경기장은 수산동 수산동 409번지 일원에 건설되며, 리본체조의

리본의 여성적이고 연속적인 곡선의 이미지를 모티브한 체조경기장은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8,874 석 규모이며, 럭비공을 형상한 럭비경기장은 지상 3층으로 5,078석 규모로 2578여원이 투입되어 2013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써, 2013 전국체전과, 2013 실내무도 아시안게임에 먼저 사용 시험운영한후 2014 아시안 게임에 대비하게 된다.

시공은 계룡건설이 맡게 되고 지역건설업체인 신동아건설이 20% 공동도급 참여 했다.

송영길 인천광역시장은 기공식에서 최근세계는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라며, 2014 아시안게임을 통해 국가경쟁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세계적 이목을 인천으로 집중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하고, 남은 3여년동안 시민의 열망과 의지를 한데 모아 차질없는 대회를 준비하여 반드시 역대대회에서 가장 감동적인 성공적인 대회를 개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 이만복)

여행바우처사업 시·군단위로 추진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여행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여행경비를 일부지원하여 여행기회를 제공하는 여행바우처(교환권 또는 이용권) : 정부가 지불을 보장하는 일종의 전표(카드, 쿠폰)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형태) 사업이 6월부터 시군단위로 추진된다.

금년부터 사업수행주체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지자체로 변경되어 추진되는 이번 사업에서 강원도는 국비(관광진흥개발기금) 1억 8천만원과 지방비 7천 7백만원 등

2억 5천 7백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약 2천여명이 지원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시·군별로 6~7월중 신청·접수를 완료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추진되며, 개인(가족)단위로 신청하는 개별바우처, 복지시설 단위로 신청하는 단체바우처, 시군별 자체기회으로 시행하는 기획바우처가 있다.

선정된 자는 관광진흥법상 등록된 전국 여행사에서 취급하는 국내 여행상품을 여행바우처카드로 구매·결제할 경우 1인당 15만원까지 지원하며, 가족동반 여행시 동반가족 수에 관계없이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접수는 여행바우처 웹사이트(www.tvouche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시군별 지정접수처에 의한 방문접수도 가능하다.

단 복지시설단체바우처는 법인공인인증서로 여행바우처 웹사이트에 서명 접수할 수 있다. 또 선착순 접수가 아닌 신청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해 소정의 심사등선정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접수안내는 도 및 시군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기타 자세한 문의는 도콜센터(☎120), 시군은 각 관광부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강원 전태준)

오천만의 농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희망으로 넘치는 농촌을 보고 싶어합니다. 농협이 변함없이 도시와 농촌을 이어주는 이유, 오천만 모두에게 더 큰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희망으로 가득 찬 농촌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합니다.

NH 농협